

2023년 11월 12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06편 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63(통197)장 이 세상 험하고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에스라 4장 11~24절(구약p.715)

11.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12.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13.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14.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15.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16.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17.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이다
18.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19.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20.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21.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22.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23.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24.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이년까지 중단되니라

◎ 말씀선포 / 대적들이 승리할 때

올 한 해가 다 지나고 벌써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반기 성찬식을 행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해 저마다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된 일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 많은 대적들로 매 순간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며 슬퍼했던 일들도 있었고, 그러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 하며 겪었던 어려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들은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정치력을 동원해 성전 재건을 훼방했으며 그 결과 20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적들의 훼방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믿음과 자세로 그 상황을 이겨 내야 하겠습니까?

1. 두려워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은 아닥사스다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본문 11~15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올린 상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읍을 재건하면 제국의 반대 세력이 되어 왕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리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아닥사스다왕이 두려워하는 부분을 공략하여 마침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킬 법적 근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적들은 성전 건축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상소를 올렸고, 결국 무력으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술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세상 누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보낸 군사들의 위세에 놀려 그만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 상소의 내용을 반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계획을 세웠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정과 자녀, 경제의 부분에서 영적인 일들과 육적인 우리의 삶 속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1달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실패와 낙심과 또는 절망이 드리워 소망을 잃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며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일들로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8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을 타산지석 삼아 눈앞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 아닥사스다왕은 상소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건축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본문 22~24절입니다.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이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정황을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혹시나 생길 반역에 대한 두려움으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닥사스다왕의 갑작스런 조치와 항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포기한 채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의 공사 현장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물어야 했고, 하나님의 일이 대적들에게 방해받는 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며 고난의 일이 생길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혹 내 뜻과 생각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면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역이 막히고 억울한 일이 지속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기에 앞서 그분의 뜻을 묻고 도움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더 큰 문제를 만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장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어그러진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며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는 머리로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또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합니다. 예배 모범에서 성찬식 예식사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이 예식을 행합니다. 기념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입니다. 분명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난이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의 사형 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십자가를 기념하며 생각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견디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 병약한 자들에게는 치유함을,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영과 육의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하시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전히 대적들의 횡포로 사역이 막히고 우리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기념하여 이 성찬을 행할 때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낙심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더욱 기도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269(통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 폐 회 / 주기도문